

자료명	대한상의 - 환경재단 공동 ‘청년환경포럼’ 개최
엠바고	6월 29일(월)자 조간(통신, 인터넷 등은 6/28(일) 12:00부터)
문의처	ERT사업팀 옥혜정 팀장(02-6050-3631, 010-9473-3204), 하서영 연구원(3634)

청년이 제안한 환경문제 해법... 대한상의-환경재단 ‘청년환경포럼’ 개최

- ‘기업의 인프라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아이디어’ 주제로 학생 50여명 머리 맞대
- ‘포장재 회수·재사용 시스템’,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구축’ 등 청년 주도의 실천형 아이디어 눈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27일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공동으로 ‘청년환경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업의 인프라와 결합해, 실효성 있는 친환경 실천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환경동아리를 비롯 대학연합 환경동아리 소속 청년 약 50여명이 참석해 치열한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을 펼쳤다.

특히 단순한 환경 보호 캠페인을 넘어,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제시돼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유통·물류기업의 배송망을 활용한 ‘포장재 회수·재사용 시스템’, 학내 다회용기 스테이션을 통한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구축, ‘도시하천 생태복원’ 프로젝트 등이 눈길을 끌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천형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포럼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환경문제 해결 과정에서 청년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도적인 대안 제시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우리의 아이디어가 기업의 인프라와 협력해 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환경문제 해결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까지 폭넓게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기업의

자원과 인프라가 환경문제 해결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청년의 상상력과 기업의 실행력이 만나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참고	대한상의-환경재단 공동 '청년환경포럼'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6/27(토) 09:30 ~ 13:00 /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재단 ☐ 주제 : 청년이 생각하는 기업의 환경문제 해결 아이디어 ☐ 참석자 : 대한상의, 환경재단, 대학 환경동아리 및 청년 등 50여 명 ☐ 주요 프로그램 - 09:30~09:45 오프닝(대한상의 ERT사무국장, 환경재단 대표 인사말씀) - 09:45~11:00 우수 아이디어 발표(5팀)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피드백 - 11:00~11:20 심사위원 결과 집계 - 11:20~11:30 우수 아이디어 시상 - 11:30~13:00 참석자 네트워킹